

원 저

宋代 교정의서국(校定醫書局)에 대한 고찰

-학문연구의 근거 구축의 관점을 중심으로-

왕소영, 최환수¹⁾, 김용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한국 한의학연구원¹⁾

The Study about GyoJungEuiSeoGuk of Song Dynasty - On the basis of viewpoint in building the foundation of scientific research -

So-Young Wang, Whan-Soo Choi¹⁾, Yong-Jin Kim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¹⁾

The GyoJungEuiSeoGuk(校定醫書局, the bureau for revising of medical books)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2nd year of InJong GaWoo of Song dynasty, made comparative analyzation about various kinds of publication and reference materials of all classical medical books that was published until Jin Han and Su Dang dynasty, revised the medical books like as Bozushinnongboncho(補注神農本草), Zungkwangbojuhwangjenegyungsomun(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Shanghanlon(傷寒論), Bigupchungumyobang(備急千金要方), Magkyung(脈經), Hwangjechimgugapeulgyung(黃帝鍼灸甲乙經), Oedaebiyo(外臺備要), Chunggumikbang(千金翼方) etc. The signification of such revision was not only to preserve the materials which may be lost before, bibliographically and also make the books of Hwangjenegyung(黃帝內經), Shanghanlon(傷寒論) etc. become more regularly. And it made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al research depends on the documentary records so as to make it have big development by deductive method till the beginning of modern age. The success of GyoJungEuiSeoGuk indicates that the stagnation of Korean Medical research due to it's behind with the development of politics-economy, social culture and scientific technology which based on western scientific culture. So we may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success of scientific research needs to parallel with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of the surrounding science.

Key Words: GyoJungEuiSeoGuk, Zungkwangboju hwangjenegyungsomun, Shanghanlon, Bozushinnongboncho,

서론

한의학은 세계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의학체제로까지 발전한 서양의학과 함께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¹⁾. 하지만 학문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와 아울러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비판받으면서²⁾ 현재 국가의 보건의

· 접수 : 2003년 8월 25일 · 논문심사 : 2003년 9월 5일

· 채택 : 2003년 11월 2일

· 교신저자 : (300-716)왕소영,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Tel. 042-280-2626, E-mail: king@dju.ac.kr)

료체계내에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학문의 기반이 되는 서양과학적 연구방법에 전통 한의학의 그것을 제대로 융합시키지 못하고 단지 고대 문헌들을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임상(표준)로 삼는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연구는 실험방법과 전통한의학이론사이에서 표류하면서 그 가치를 잃고 있다⁵⁾.

과학으로서의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위상(位相)을 합법칙적 발전의 결과로 파악하고, 현재를 합법칙적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하며, 미래를 합법칙적 발전의 귀결로 파악하므로, 항상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실천성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⁶⁾. 따라서 오늘날에 부딪히는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전 한의학 역사의 발전 규칙을 고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의학에 대한 약점으로서 비판받으면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한의학 연구방법은 고대 의학경전들을 이론검증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저술을 기원으로 삼으며⁷⁾, 송대 교정의서국의 기존 의서의 교정을 통한 대량출판 또한 커다란 분기점으로써 후대 한의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송대시기에 교정의서국이 설치된 배경은 무엇이며, 한의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고대 문헌을 이론검증의 근거로 삼는 한의학방법의 보완가능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학의 역사적 발전형식에 대해 송지행(宋知行)⁸⁾은 “첫째 많은 자료와 학설을 집대성·보충하여 저술하고, 둘째 철학적 이론사상을 끌어들이 의학이론에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한의학의 이론방법을 창조하고, 셋째 임상을 기초로 어떤 질병의 치료체계를 총괄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전형식은 근대이전 한의학의 발전규칙에 대한 것으로써, 19세기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학의 이론체계로서 안정적 상태로 발전시켰다. 견지아(甄志亞)⁹⁾는 ① 계통적 이론을 확립하고 완벽한 체계를 형성, ② 임상적인

치료효과와 탁월함, ③ 의학과 의학 저서들의 많은 출현, ④ 의학 사상 ‘최초’라는 기록들 등의 지표로서 한의학이 19세기 초에 안정적 상태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의 한의학의 역사 발전형식이 근대이전 한의학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자료와 학설을 집대성·보충하여 저술’이라는 발전형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상한론(傷寒論)』·『난경(難經)』 등에 대한 주석의 형식과 다른 하나는 방서 즉 처방서의 저술형식 두가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대 의서의 주석을 통한 연구는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역적 해석과 한의학이론의 검증기준으로 삼는 한의학의 독특한 연구방법이 되었다⁸⁾.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의학의 고대 문헌을 연구의 근거로 삼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그 고대 문헌에는 어떤 오류·착오 등의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송대 이전까지 발간되었던 고대 문헌들, 특히 오늘날에 한의학의 경전이라고 하는 문헌들은 송대에 대대적인 교정작업을 통한 발간으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확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의학서적의 유포의 폭이 광범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이후 근대 이전까지 한의학이 발전하는 중에 연구 근거(기준)가 되어 한의학 연구를 부흥시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근대이전 한의학 역사상 의학연구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교정의서국 및 교정사업

1) 교정의서국의 설립

송(宋) 조정은 일찍이 여러 번 조서를 내려 의학서적(醫學書籍)을 수집하였으며 책을 헌납한 사람에게는 많은 우대와 편리를 주었다.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981년) 『방구의서조(訪求醫書詔)』에 “宜令諸路轉運司, 遍指揮所管州府, 應士庶家有前代醫書, 并許詣闕進納. 凡二百卷已上者, 無出身與出身, 已任職管者亦與

遷轉, 不及二百卷, 優給緡錢償之; 有詣闕進醫書者, 并許乘傳, 仍縣次續食.”이라 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如不納官者, 借本繕寫”라 하였으니 이처럼 대규모로 의서(醫書)를 구하고자 하는 작업은 정부의 역량을 실현한 것이었다.

개보(開寶) 6년(A.D 973) 송 태조(太祖) 조광운(趙匡胤)은 유한(劉翰) 등 9인에게 영을 내려 “詳校諸本”하게 하였으니 『신수본초(新修本草)』와 『촉본초(蜀本草)』를 기초로 “取陳藏器拾遺諸書相參”함으로써 별명(別名)을 정정하고 신약(新藥)을 첨가하면서 마지(馬志)가 주해(注解)하고 호몽(扈蒙), 노다손(盧多遜) 등이 잘못을 바로 잡아 20권의 책을 만드니 황제가 친히 서문을 달고 서명(書名)을 『개보상정본초(開寶詳定本草)』라 이름하니 이는 송대에 고의적(古醫籍)을 정리하는 시초가 되었다.

본 서적이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한 “所釋藥類或有未充”이 나타나게 되어 다음 해(A.D 974) 조정에서는 다시 영을 내려 한림학사(翰林學士) 이방(李昉) 및 유한, 마지 등으로 하여금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원서를 기초로 21권으로 만들어 “以白字爲神農所說, 黑字爲名醫所傳”하게 하고 서명을 『개보중정본초(開寶重定本草)』로 정하였으니 책을 만든 후 “廣頒天下, 傳而行焉”하게 하니 송대 제일의 관방약전(官方藥典)이 되었다.

송 태평흥국 연간(981~982)에 한림학사 가황중(賈黃中)과 한림의관사(翰林醫官使) 왕희은(王懷隱) 등으로 하여금 『옹희신의보구방(雍熙神醫普救方)』,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등을 분찬(分纂)케 하였다. 또 송 천성(天聖) 4년(1026)에 宋 인종(仁宗)은 재차 의서와 의방(醫方)을 모아 집현교리(集賢校理) 조종각(晁宗慤), 왕거정(王舉正) 등에게 명하여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소씨제병원후론(巢氏諸病源候論)』, 『난경』을 정리·교정(整理·校定)하게 하고 다음 해(1027) 4월 국자감(國子監)에 명하여 모사하여 반행(頒行)케 하였다.

경우(景祐) 2년(1035년)에는 집현원(集賢院) 장우석(掌禹錫)과 임억(林億), 교리(校理) 장동(張洞), 교감(校

勘) 소송(蘇頌) 등에게 영을 내려 교정(校正)하게 한 후 손기(孫奇), 고보형(高保衡), 손조(孫兆)에게 명을 내려 『소문(素問)』 등의 책을 교정·정리하도록 하여 매번 교정을 끝내면 황제에게 바치고 임억 등이 서로 나누어 서문(序文)을 작성한 후 국자감에서 간행케 하였다.

결국 인종 가우(嘉祐) 2년(1057년) 추밀원사(樞密院史) 한기주(韓琦奏)는 말하기를 “『영추(靈樞)』, 『태소(太素)』, 『감을경』, 『광제(廣濟)』, 『천금(千金)』, 『외대비요방(外臺備要方)』과 같은 류에 많은 오류가 있고, 『본초』의 편제(編載)에 빠진 바가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교감·수정(校勘·修正)을 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8월 인종은 영을 내려 편수원(編修院)내에 교정의서국을 설치하여 장우석, 임억, 장동, 소송 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교정을 보도록 하였고, 그 후에는 또 손기, 고보형, 손조 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면서 의관(醫官)인 진종고(秦宗古), 주유장(朱有章) 등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하였다. 교정의서국에서는 당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유신(儒臣) 및 의관들을 함께 모아 의서의 내용과 문자를 정확하게 교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유의(儒醫)가 의서를 교수(校修)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의적(醫籍)을 성공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는 국력과 인력을 집중하여 서적의 교정작업을 순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장우석은 말하기를 “여러 서적을 고증하여 바로 잡는 일은 여러 사람들이 이를 살펴보기 됨으로써 쉽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서적을 교정하는 작업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정의서국이 설립되기 이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곧 송 정부가 통일한 직후부터 의학서적의 수집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또한 많은 분량의 의서를 편찬하면서 어떤 학문연구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정의서국은 설립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표-1. 교정의서국에서 간행한 고대 의서

발간연대	서명	권수	출처	보급 상황
1060	嘉祐5년 補注神農本草(嘉祐本草) 목1권	10권	經史證類備急本草卷末 補注本草奏勅	원서 亡失 (證類本草에 내용삽입)
1062	嘉祐7년 (嘉祐)圖經本草	20권	위와 같은 圖經本草奏勅	원서 亡失 (證類本草에 내용삽입)
1065	治平2년2월 傷寒論	10권	傷寒論卷首 國子監刻書表	復刻本, 影刻본이 존재
1066	治平3년1월 金匱玉函經	8권	金匱玉函經 林億 등 序	復刻본이 존재
1066	治平3년4월 備急千金要方	30권	備急千金要方 林億 등 序	復刻본이 존재
1066	治平3년 金匱要略方論	3권	金匱要略方論 林億 등 序	復刻본이 존재
1067	治平4년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24권	黃帝內經素問 林億 등 序	復刻本, 影刻본이 존재
1068	熙寧1년7월 脈經	10권	脈經 林億 등 序	復刻본이 존재
1069	熙寧2년4월 黃帝鍼灸甲乙經	12권	鍼灸甲乙經 序例	復刻본이 존재
1069	熙寧2년5월 外臺備要	40권	外臺備要 宋臣進表	復刻본이 존재
연대 미상	千金翼方	30권	千金翼方 林億等氏 后序	復刻본이 존재

2) 교정 내용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한 고대 문헌들은 다음 표와 같다¹⁰⁾.

그런데 교정의서국이 설치된 1057년 이후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대 의서들을 교정하여 발간하였지만 교정의서국 설치 이전에도 이미 고대 의서에 대한 교정작업과 발간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¹¹⁾.

· 인종 천성(天聖) 4년(1026년)

- 왕한림집주황제팔십일난경(王翰林集注黃帝八十一難經) 5권, 왕구사(王九思) 경부(敬夫) 등 編

· 인종 천성5년(1027년)

- 제병원후론 50권, 조종각(晁宗慤), 왕거정(王舉正)이 교정, 국자감(國子監)에서 인쇄하여 반포하였고 송완(宋緩)이 序를 撰함.

- 황제내경소문 9권, 조종각, 왕거정이 교정, 국자감에서 인쇄하여 반포

- 난경(難經) 3권, 조종각, 왕거정이 교정, 국자감에서 인쇄하여 반포

· 인종 황우(皇祐)3년(1051년)

- 외대비요 40권, 손조(孫兆)가 교감

· 인종 가우원년(1056년)

- 중광보주황제내경소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24권, 고보형, 임억 共校, 다음해 교정의서국에서 재차 교정

즉 교정의서국의 설립은 앞서서 수행된 교정작업 중에서 고대 의서에 대한 대대적인 교정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송대 초기의 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송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특히 신농본초경을 제외하고는 황제내경소문과 상한론을 교감하는데 참고하였던 의서들까지도 이후에 교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아래에 황제내경과 상한론을 중심으로 그 교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제내경¹²⁾

『황제내경소문』의 원래 전하는 본은 九卷인데 왕빙은 全注로 본을 만들어 12년의 세월동안 注釋을 거듭하니 24卷이 되었다. 왕빙이 注한 『소문』을 다시 임억이 校正하여 널리 유포시킨 것이니 후세 『소문』의 通行本이 된 것이다.

임억은 『소문』에 대해 “去聖已遠, 其術暗昧, 是以文注紛錯, 義理混淆.”라 하면서 王氷의 注本을 기초로 다시 “搜訪中外, 哀輯衆本, 寢尋其義, 正其訛舛”라 하여 校勘·補注를 더하여 書名을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 하였다. 임억이 이를 교정한 이후에야 漢唐이래로 계속되어 오던 많은 序文에 대한 분란의 상황이 안정되었으며, 최근 『소문』의 분류 형식은 대부분 왕빙의 注와 임억의 校本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임억이 교감하는 중 『소문』의 부동한 판본을 選用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많은 의서와 訓詁書를 채택하여 副本을 널리 갖추고 곁하여 여러 서적의 장점을 취하였으니 예를 들어 『갑을경』, 『태소』, 『난경』, 『맥경』, 『비급천금요방』, 『소씨제병원후론』, 『영추』, 『상한론』, 『천원옥책(天元玉冊)』, 『이아(爾雅)』 등이었으며, 이들을 모두 광범하게 인용하였다.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의 “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와 같은 조문의 경우 임역은 新校正에서 이르기 “전원기의 注本에는 飲食에 일정한 절도가 있고, 起居에 일정한 법도가 있으며, 不妄不作”이라 하였으며, 또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의 조문에 대해 新校正에서는 이르기를 “『갑을경』에 살펴보면 耗는 好라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임역은 교감하는 과정중 醫理와 文理에 근거하여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으니 『소문·옥기진장론(玉機眞藏論)』의 “病在中脈實堅, 病在外脈不實堅者, 皆難治”의 조문 아래 임역의 신교정에 이르기를 “『평인기상론(平人氣象論)』의 ‘病在中脈虛, 病在外脈澀堅’과는 상반되는 것이니 이러한 잘못은 논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소문·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에 이르기를 “人迎與寸口俱盛四倍以上爲關格, 關格之脈羸, 不能極于天地之精氣, 則死矣”의 조문 아래 新校正에서는 이르기를 “羸는 마땅히 贏로 바꾸어야 한다. 脈이 盛한 것이 四倍 이상이면 羸가 아닌 極盛한 것이다. 古文의 ‘羸’과 ‘嬴’은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역 등은 교감하는 중 원문에 대해 많은 誤字, 訛文, 脫文, 倒文, 衍文, 錯簡된 곳을 바로 잡았으니 예를 들어 『소문·평인기상론』에 “寸口脈沈而弱, 曰寒熱及疝瘕少腹痛”의 조문 아래 新校正에서는 이르기를 “『갑을경』을 살펴보면 이 十五字가 없으며 아울러 下文에 이미 ‘寸口脈沈而喘曰寒熱’, ‘脈急者曰疝瘕少腹痛’이라 하여 이 문장은 빠져 있으니 마땅히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문』을 정리하여 교정하던 중 모두 6,000餘字의 謬誤를 바로 잡았고, 2,000여條에 注義를 더하였으며, 또한 한 마디로 취하거나 버릴 때는 반드시 고찰하였으며, 잘못된 문장의 의심스러운 곳은 명백히 하였

다. 따라서 후인은 매우 귀한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明代 呂復(呂復)은 말하기를 “唐代 왕빙은 『九靈』九卷을 『漢志』와 합하여 주석을 하였으며 또한 『陰陽大論』은 그 스승 張公이 소장한 것을 빌려 잃어버린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매우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 朱墨이 混淆되어 있고, 玉石이 相亂하며 訓詁를 잃어버린 채 迂疏하여 인용할 때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宋代에 이르러 임역, 고약눌(高若訥) 등이 그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으니 왕빙보다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소문』이외에도 北宋의 교정의서국에서는 일찍이 『영추』를 교정하였지만 전하는 교정본을 세간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宋代 高宗은 소흥(紹興) 二十五年 乙亥年(A.D 1155)에 綿官에 사는 사송(史崧)이 家藏舊本 『靈樞經』九卷을 다시 새롭게 교정하고, “音釋”을 더하여 24卷(후인은 12卷으로 개정)으로 확대하였으니 『영추』의 전해오는 판본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이를 定型하고 있다.

(2) 상한론⁹⁾

仲景의 『상한론』이라는 한 권의 책은 한의학의 변증론치(辨證論治) 체계의 기초를 이룬 것으로 존경받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서적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하며, 많은 證候의 虛實寒熱은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과 명확한 지도를 더하지는 않아 일반 의사들이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상한론』을 비록 晋代 왕숙화가 정리하고 編次하였지만 兩晋南北朝를 지나 隋唐五代의 약 700~800년간은 광범하게 전파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때로는 나타났다가 때로는 사라져 갔으므로 唐代의 名醫 손사막은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이라 한탄하다가 晚年에 이르러 『상한론』을 보고 높게 평가하여 말하기를 “傷寒熱病, 自古有之, 名醫睿哲, 多所防禦, 至于仲景, 特有神功”(『千金翼方·傷寒』)이라 하면서 상한의 요지를 『천금요방』, 『천금익방』에 수록하였다.

이 외에도 唐代에는 별도의 『정리상한론(正理傷寒

論』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으니 이는 『상한론』의 다른 하나의 傳本으로 왕빙이 『소문』을 注解할 때 일찍이 그 논술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脈大浮數, 病爲在表, 可發其汗; 脈細沈數, 病在裏, 可下之.”라 하여 이치를 갖추었되 정미한 점은 약간은 다른 것이니 이는 이미 학술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책은 후세에 전해오지는 않는다.

宋代에 이르러 宋太祖 개보(開寶)(968~976)년간에 절도사 고계(高繼)는 『상한론』을 편집 기록하여 진상하였으나 그 文理가 잘못된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고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역대 조정에서는 이를 서고에 갖추어두고 대궐에서 이를 교정하였지만 천하의 의사들은 그 要旨를 볼 수 없었다. 나중에 翰林學士 왕수(王洙)가 관각두간(館閣葺簡)에 있던 중 중경의 『금궐옥함요략방(金匱玉函要略方)』 3卷을 얻었으니 上卷은 상한을 辨한 것이고, 中卷은 잡병(雜病)을 논한 것이며, 下卷은 그 처방을 기재한 것이어 이를 곧 세상에 유포하였지만 광범위하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978~998년에 왕희은(王懷隱) 등의 醫官이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을 편집하였는데 그 중 卷八의 상한부분의 文字體制와 『상한론』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니 이 傳本은 나중에 임억 등이 정리한 『상한론』 傳本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1057년 교정의서국이 세워진 후 宋 英宗 治平年間에 손기, 임억 등과 같은 사람이 왕명을 받아 재차 『상한론』 傳本을 체계적으로 교감·정리하니 교정한 후 叢書를 十卷, 三百九十七條로 나누고 증복되고 실전된 方을 제외한 113方을 만들었으니 이 『상한론』이 점차 세간에 유행하게 되었다.

즉 상한론이 완성된 이후에 왕숙화의 첫 번째 정리를 통해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보급 과정에서 상한론과 금궐옥함경의 두가지 전달 계통을 가지게 됨으로써, 글자의 윤색, 조문의 체계 및 삼음삼양의 편명과 육경변증체계가 모두 이 과정에서 완성되어갔는데, 결국 송대 교정의서국에서의 교감을 통하여 상한론 텍스트를 정형화된 규범으로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 상한론이 전승되어진 것이다¹²⁾.

당본(唐本) 상한론(친금익방 권9·10)과 송본(宋本-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한 판본) 상한론의 구조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교정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양 판본은 모두 삼음삼양(三陰三陽)을 전면 에 배열하고, 모든 가(可)와 불가(不可)를 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당본은 상하(上下) 두 권이고, 16편으로 구분한데 반해, 송본은 10권,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당본에는 송본의 변맥법제일(辨脈法第一), 평맥법제이(平脈法第二), 상한예제삼(傷寒例第三) 등 3편이 없다. 두 번째 당본은 ‘변치습갈(辨瘧濕鬪)’ 편을 태양병용계지탕법(太陽病用桂枝湯法)의 앞에 배치한데 반해, 송본은 태양병의 전면 에 배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삼양삼양의 상한론의 중심내용인데 당본은 태양병에 대해 계지탕법(桂枝湯法), 마황탕법

표-1. 傷寒論 唐·宋本간의 可와 不可 篇의 비교

당본 상한론	송본 상한론
忌發汗제1 14조	辨不可發汗제15 32조
宜發汗제2 13조	辨可發汗제16 48조
忌吐제3 3조	辨不可吐제18 4조
宜吐제4 3조	辨可吐제19 7조
忌下제5 3조	辨不可下제20 43조
宜下제6 19조	辨可下제21 47조
宜溫제7 10조	편명은 없고 조문은 대부분 있다
忌火제8 6조	편명은 없고 조문은 있다
宜火제9 1조	편명과 조문 모두 없다
忌灸제10 3조	편명은 없고 조문은 있다
宜灸제11 6조	편명은 없고 조문은 있다
忌刺제12 1조	편명과 조문 모두 없다
宜刺제13 9조	편명은 없고 조문은 대부분 있다
忌水제14 3조	편명은 없고 조문이 약간 있다
宜水제15 3조	편명은 없고 조문이 약간 있다
發汗吐下後 31조	辨發汗吐下後제22 29조
	辨發汗後제17 34조

(麻黃湯法), 청룡탕법(靑龍湯法), 시호탕법(柴胡湯法), 승기탕법(承氣湯法), 함흉탕법(陷胸湯法), 잡료법(雜療法) 등 7법으로 분류한데 반해, 송본은 계지탕법, 마황탕법, 청룡탕법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송본의 태양병편은 태양상편, 태양중편, 태양하편으로 구분하고 조문은 1조-178조까지인데 반해 당본의 그것은 송본보다 18조가 적은데 6, 11, 30, 47, 48, 51, 73, 78, 81, 90, 110, 111, 121, 127, 140, 162, 167, 178조문이다. 나머지 조문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예를 들면 당본 조문 1개에 송본은 2조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같다. 이외에 양 판본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가(可)와 불가(不可) 편인데 이의 차이에 대해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¹³⁾.

(3) 비급천금요방

『천금요방』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당대 손사막의 대표적 저서이다. 이 책은 후대에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송본 『비급천금요방』과 교정을 거치지 않은 『손진인천금방』 등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판본을 비교한다면 송본 『비급천금요방』의 교정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송본과 『손진인천금방』과의 비교·분석한 기존 연구를 보면¹⁴⁾ 양본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조문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비급천금요방·범례』에서 “凡諸方有一方數篇重出, 主治不殊者, 則去之; 各有治療者, 則云方見某卷某篇”, “凡諸方與篇題各不相符者, 卒急之際, 難於尋檢, 今則改其詮次, 庶幾歷然易曉”라는 교정원칙을 제시함으로써 主治가 동일한 처방을 합하고 같은 처방인데 주치가 다른 것은 합하여 기술하고, 처방의 주치증을 더욱 관련 있는 다른 편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편의 조문에 대해 “凡諸篇類例之體, 則論居首, 脈次之, 大方在前, 單方次之, 鍼灸法處末焉. 緩急檢之, 繁而不雜也”라는 통일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편제가 다른 곳이 많다는 점이다. 즉 송본에서 『손진인천금방』과 다른 조문의 내용은 대략 720곳인데 이중 처방은 354곳, 논설은 366곳이고 『손진인천금방』에서 송본과 편제가 다른 곳은 모두 175곳인데 이중 처방은 71곳, 논설은 104곳이다. 이러한 편제의 차이는 송본의 교정당시 참고서적을 통한 대량의 증보와 약간의 삭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조문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인데, 모두 5,700곳 정도라고 하며 원인은 교정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완형식의 증보에 있다. 네 번째는 사용한 문자의 차이로서 『손진인천금방』에서는 通假字, 錯訛字가 많이 사용된데 반해 송본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규범화를 이루었고, 전자는 避唐諱字가 많은데 시대적 차이로 인해 송본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약물제법의 차이로서 『손진인천금

방』은 分, 銖의 무게단위를 사용하는데 반해, 송본은 兩을 활용하였고, 제법상의 용어 또한 후자는 격식을 갖춘데 반해, 『손진인천금방』은 그렇지 않았다.

(4) 맥경

왕숙화의 『맥경』은 중국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맥학의 전문서적으로써 후세 맥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송대 이전 『맥경』의 판본에 대한 교정의서국에서는 교정뿐만 아니라 注釋까지 하였다. 첫 번째 교정에 있어서 『소문』, 『영추』, 『태소』, 『난경』, 『잡을경』, 중경의 의서 및 『비급천금요방』과 『비급천금방』 등의 의서를 참고로 하여 교정하였으니 예를 들어 권2·3 胃實의 “右手關上脈陽實者, 足陽明經也. 病苦腹中堅痛而熱”에 대해 임역이 교정하기를 “千金作病苦頑痛”이라고 한 것과 같다. 두 번째 필사를 통한 전달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서 참고서적을 근거로 착오된 곳과 빠진 곳을 모두 교정하였는데, 권2 肝膽部第一의 “黃帝曰 春脈太過與不及, 其病皆何如 岐伯曰 太過則令人善忘”에 대해 “忘當作怒”라고 교정 한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맥경』 원서에는 많은 처방이 존재하였는데 『맥경』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거의 삭제하였다. 네 번째는 교정뿐만 아니라 약간의 주석을 하였는데 권2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의 “太陽在小手指外側本節陷中”에 대해 “陷中即後谿穴也”와 같이 의학용어를 해석한다든가, 일반 단어를 주석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어 권3 肺大腸部第四 “肺者西方金, 萬物之所終. 宿葉落, 柯葉萎, 枝條其杌然獨在”에 대해 “萎萎者, 零落之貌也. 言草木宿葉得秋, 隨風而落, 而有枝條杌然獨在”라고 한 것과 같고, 또한 권1 辨臟腑病脈陰陽大法第八 “脈何以知臟腑之病也 然 數者腑也, 遲者臟也. 數則有熱, 遲即生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故別知臟腑之病也”에 대해 “腑者陽, 故其脈數. 臟者陰, 故其脈遲. 陽行遲, 病則數. 陰行疾, 病則遲”와 같이 의학이론을 밝힌 경우도 있다¹⁵⁾.

2. 고대 의서 교정의 의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대이전까지의 의서들 『황제내경』, 『상한론』, 『금궤요략』, 『맥경』, 『신농본초

경』, 『비급천금요방』, 『황제침구잡을경』, 『외대비요』 등에 대한 송대 교정의서국에서의 교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정작업의 의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교정의서들의 서지학적 영향 및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1) 고대 경전 의서 교정의 서지학적 영향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고대 의서 교정은 『내경』, 『상한론』, 『신농본초경』 등의 한의학경전들이 저술되고 나서 송 바로 이전시대의 훈고학적 학문특색으로 인해 왕빙, 왕숙화, 도홍경에 의해 이러한 경전의서들이 1차 재편되었다. 하지만 당시 인쇄술의 미발달로 필사하거나 각판(刻版)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어떤 하나의 한의학경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본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당시 한의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연구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송대 교정의서국에서의 교정작업으로 인해 결국 고대 경전 의서의 필사를 통한 전파되는 역사적 단계를 탈피하여 판본에 대한 정형화, 규범화를 이룩함으로써 극복되었고 또한 의서 보급에 있어서도 촉진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⁹⁾. 이외에 가상적으로 당시 필사를 통한 전달형식으로 인해 보편화되지 못하고 실전

(失傳)되었을 지도 모르는 고대 경전 의서들의 보호 작용이 있었지만 각 의서들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 재편된 모습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고대 경전 의서에 대한 교정의서국에서의 교정작업의 영향은 송대 이후부터 한의학 연구가 발전하는 기반으로 전환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약간의 부정적 측면은 감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에는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한 고대 경전 의서들의 서지학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판본들에 대한 전달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황제내경

『황제내경』의 송대이전의 판본은 모두 실전되었지만 그때까지의 전달과정을 추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¹⁰⁾.

이러한 송대이전의 전달과정은 송대에 교정의서국에 왕빙주본을 기초로 교감함으로써 『황제내경』의 내용을 정형화, 규범화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교정을 통한 내용변화는 거의 없이 후대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교정의서국의 교정본이 후대로 전달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¹⁰⁾.

(2) 상한론

현재 볼 수 있는 송대 이전의 『상한론』 판본은 『맥경본』, 『천금요방본』, 『천금의방본』, 『외대비요본』 등

그림-1. 송대이전의 황제내경 판본 및 전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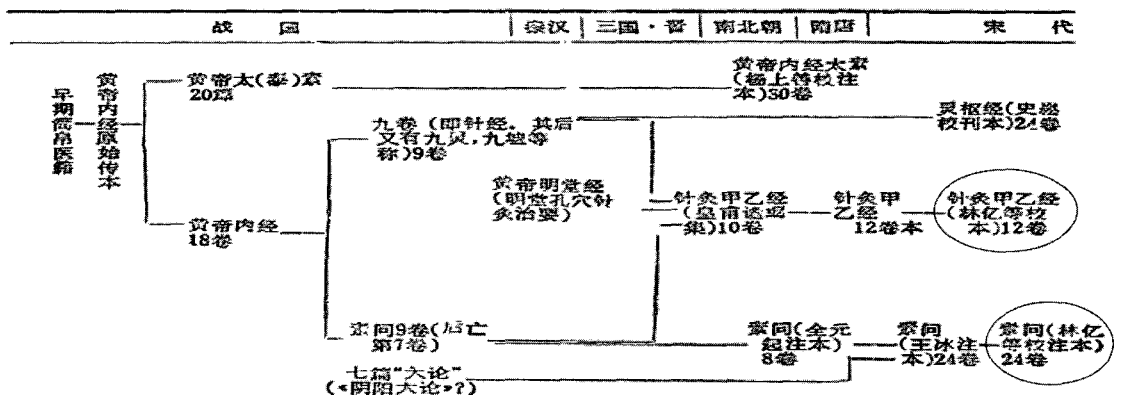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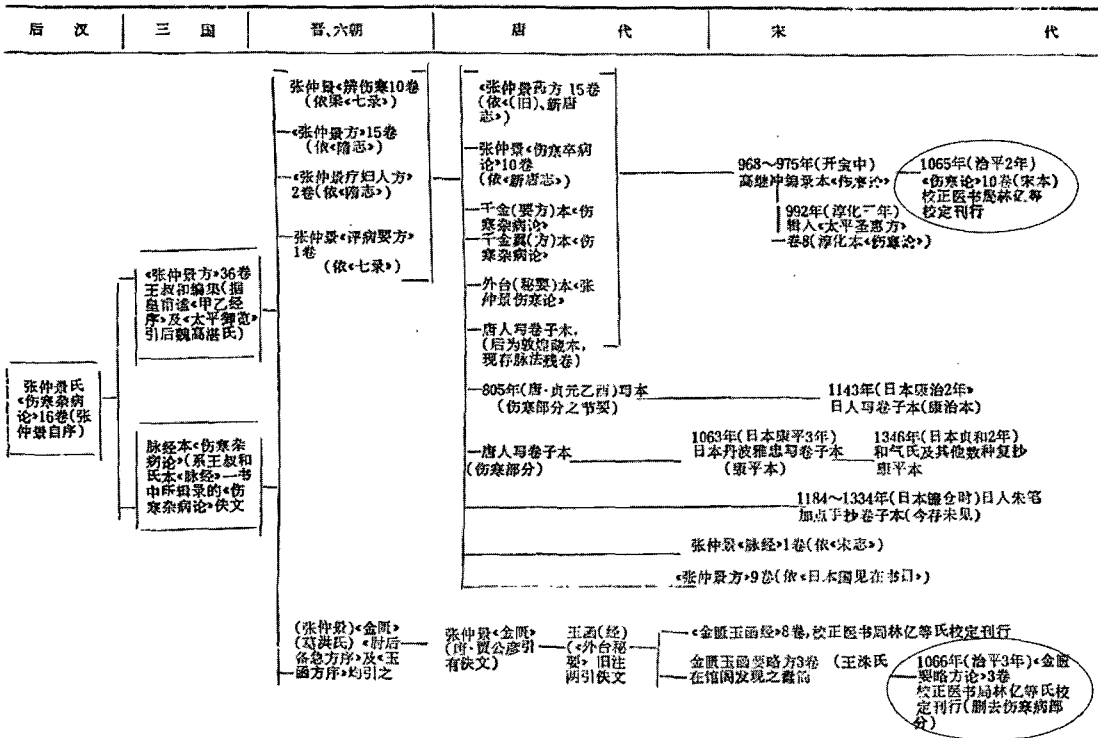


표-1. 교정의서국의 교정이후의 황제내경의 전달과정

전달 계통	설명
소문24권, 왕빙, 임역注本	왕빙, 임역注本의 嘉祐原書를 기초로 반복적으로 발행한 각종 판본
소문12권, 왕빙, 임역注本	송대 24권본을 기초로 변화되어 출판된 것으로 내용의 변화는 없지만 양권을 1권으로 합쳤기에 총 12권이 됨
소문 왕빙, 임역注本이후의 판본	-黃帝內經素問補注釋文 -각종 9권본 -卷本을 구분하지 않은 明抄本
16세기 이후의 白文本과 기타 全注本	-백문본 : 소문의 원문만 있고 주석이 없는 판본 -전주본 : 소문중에서 왕빙, 임역注를 없애고 다시 새롭게 전체적으로 주석을 한 판본

그림-2. 송대이전의 상한론 판본 및 전달과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송대 교정의서국을 통해서 정형화된 『상한론』 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후세의 『상한론』 연구를 촉진시킨 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대 교정은 여러 판본의 대조 교정하고 『상한론』 내용의 앞뒤를 상호 다른 서적을 참고하여 교정함으로써 기본 판본과 참고본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작은 글자로 주를 달아 명백히 하고 의학이론 전개상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곳에는 小注로서 고찰을 가하였는데 널리 다른 판본에서 말한 바를 기록

한 후에 의학이론을 바르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교정의서국의 상한론 교정본은 전달되면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첫 번째는 송대 이전 여러 판본의 번잡함을 교정을 통해 모범 판본을 형성시켜 오늘날까지 전달되기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교정시에 이전의 교감내용을 큰 글자로 표시하여 보존하였고 이외 송이전의 다른 판본중에서 차이가 있는 문헌자료는 작은 글자로 注를 다는 형식으로 보존했다는 것이다¹²⁾.

아래에는 『상한론』 판본들의 역대 전달과정에 대

왕소영 외 2인 : 宋代 교정의서국(校定醫書局)에 대한 고찰, 학문연구의 근거 구축의 관점을 중심으로 (105)

그림-3. 송대이후 황제내경의 판본 및 전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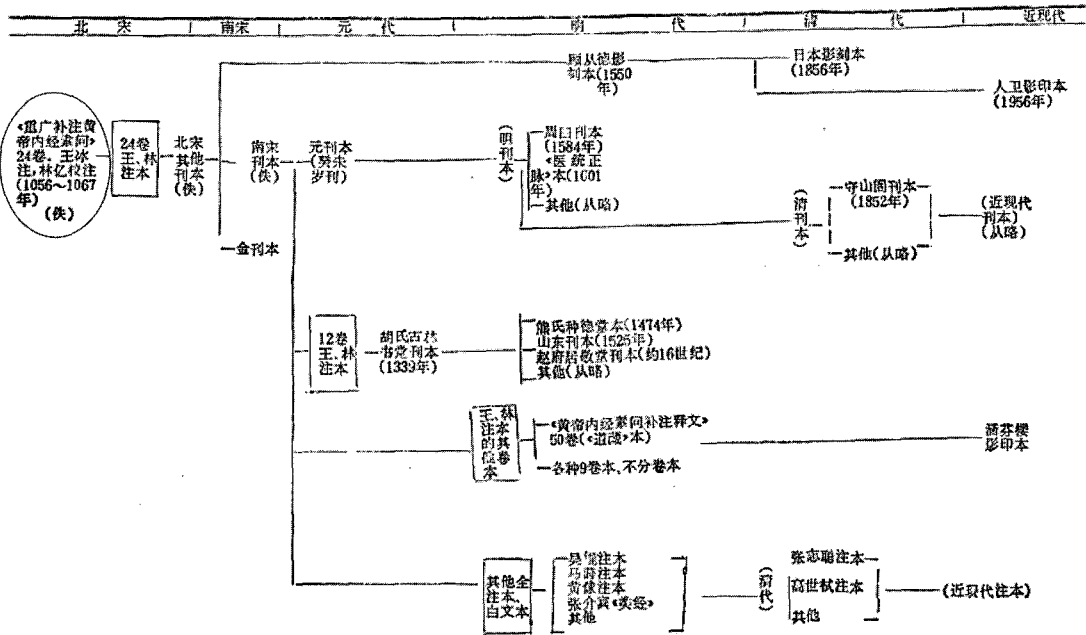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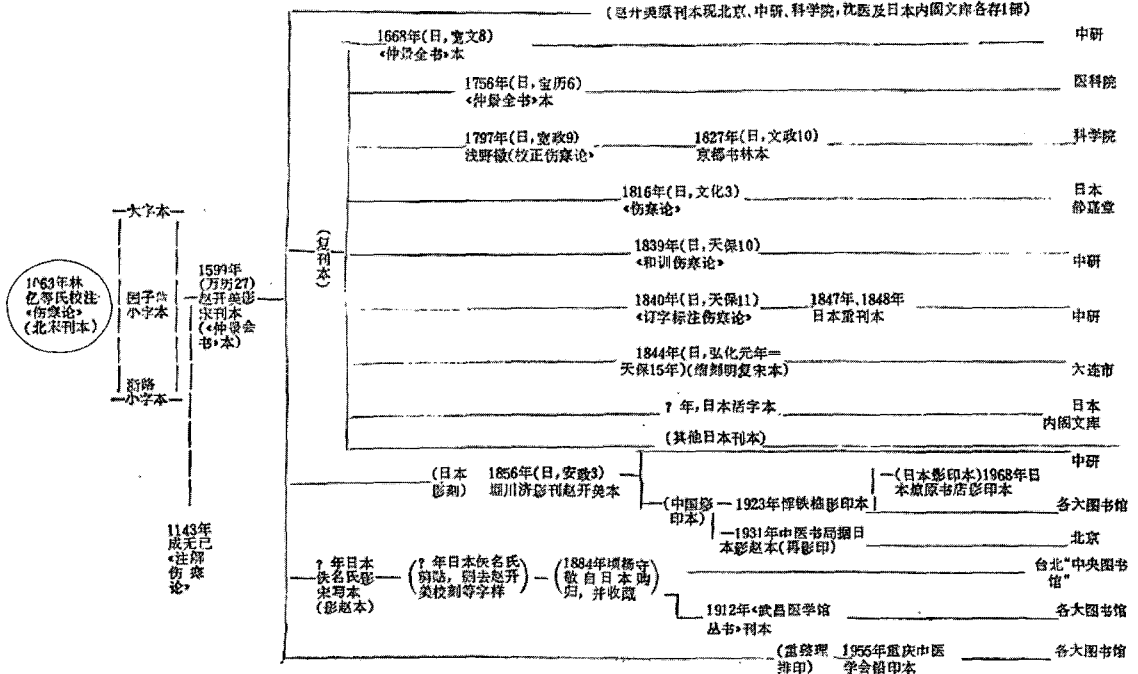


그림-3. 송대 상한론 교정본의 전달과정



한 그림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이전 한의학 발전상에서의 의의

근대이전의 한의학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고대사회 문화에서 생겨난 학문으로써 그 지역의 철학과 자연 과학 및 사회문화의 발전과 함께 했다. 이는 근대이 후 한의학이 서양의학, 문화와 병존하면서 국가보건의 의료체계상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변모된 것과는 달리 근대이전 한의학은 주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학사 연구에 있어서 발전단계를 개략적으로 구분한다면 연역과 類推의학(B.C.2000-B.C.221) - 경험과 사변의학(B.C.206-A.D.1644) - 고증과 회통의학(A.D.1644-1919)이라고 할 수 있다⁶⁾. 또한 좀더 세분하여 한의학의 역사적 발전상황을 고찰한다면 의학발전에 명백하게 공헌이 큰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성립 혹은 뚜렷한 의학발전의 업적을 참고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엄세운⁷⁾과 견지아⁸⁾이 말한 개략적인 한의학 발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본고에서 고찰하는 송대 교정의서국의 의의를 명백하게 밝히는데 완전하게 적합

하지 않지만 통시적인 의의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언급하였다.

본고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 구분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송대를 기준으로 전기(前期)와 후기(後期)로 나누고 전기에는 미신과 본능적 행위에서 얻어진 경험의 양태를 취하는 경서성립이전기(經書成立以前期), 『내경』이 성립되어지는 경서성립기(經書成立期), 『내경』과 『상한론』에 대해 왕빙과 왕숙화에 의해 주석과 재편되는 경서성립이후기(經書成立以後期)로 세분하였고 후기는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를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는 학파형성기(學派形成期), 명문(命門)·삼초(三焦)에 관한 논쟁과 학파간의 논쟁이 본격화되는 논쟁의 시기로서 명청(明清), 아편전쟁 이후 밀려오는 서구 문물에 대한 한의학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3의 혼란기 등이다. 이러한 시대구분론으로 본다면 송대는 전체 근대이전 한의학 발전의 전환점으로써의 작용을 한 것이 되며, 특히 교정의서국의 고대 경전 의서에 대한 교정을 통한 텍스트의 정형화, 규범화는 교정이전의 의학발전을 계승·보완한 것이 되며 교정이후의 의학발전을 촉진시킨 촉매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표-5. 중국을 중심으로 본 한의학의 의학발전의 개황

	嚴世囊	甄志亞	대표적 의학자·저술 및 발전학과	
夏商 周		초기의 의약위생의 실천		
秦	중의학술이론 형성	의학이론체계의 초보적 형성	『황제내경』 『신농본초경』 張仲景·『상한잡병론』	이론체계완성
漢	임상의학의 발달과 운기학설의 시작		王叔和·『맥경』 皇甫謐·『침구잡을경』	臨床辨證體系, 診斷學과 鍼灸學 발전
三國·晉 ·南北朝	의학이론의 전면적인 계승과 임상치료의 혁신적 발전	의약학의 전면적 발전	巢元方·『제병원후론』 孫思邈·『천금방』	病理學·病因學·證候學體系 와 臨床分科·經典註釋시작
隋唐 五代				
宋 金元	이론탐색의 심화와 새로운 학문의 흥기	의약학의 뛰어난 성취와 의학학파의 창립	劉完素·張從正·張元素· 李東垣·朱丹溪의 저술	金元四大家출현;醫學理論의 논쟁⇒이전의 이론미비점 보충
明	금원의학의 계승과 의학이론의 충실과 발전	의약학의 실재와 이론상의 새로운 발전	張景岳·『景岳全書』 李時珍·『本草綱目』 葉天士	약물학의 총결 溫補學派출현 溫病辨證論治학립
清	온병학설의 완성과 임상의학의 진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정의서국의 고대 경전 의서에 대한 교정은 단순히 문헌학, 서지학적인 교감, 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연구근거를 구축하였다는데 의학발전상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송대의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교정을 통하지 않았다면 서지학적으로 고대 경전 의서를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으며(서지학적 의의), 또한 이후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학이론탐색의 심화와 새로운 학문의 흥기, 중심이론의 차이로 인한 학파의 형성, 임상의학의 진보 등을 통해 한의학의 의학이론연구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단순한 경험의학으로 전락되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했던 의서들-『황제내경』, 『상한론』, 『신농본초경』, 『맥경』 등-이 오늘날까지도 한의학 연구의 표준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충분히 그 의의를 알 수 있다.

3. 송대 교정의서국의 성립 배경

당대(唐代)까지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전 의서들 『황제내경』, 『상한론』, 『신농본초경』, 『맥경』 등이 저술되고 1차적으로 교정을 거쳤지만 인쇄술의 미발달과 시대적 제한에 의해 많은 이들 의서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경전 의서들이 필사를 통한 전달로 인해 내용의 오류와 여러 가지 판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의학연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송 정부는 교정의서국을 설치하여 고대 경전 의서들의 교정을 통해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경전 의서들을 새롭게 출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이전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왜 송대에 교정의서국이 성립되고 또 이 때에 경전 의서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의학의 내적 요인인 의학발전상에서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한 외적 요인인 정치, 사회문화, 과학기술상의 요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학의 외적 요인

의학의 외적 요인이라고 하면 정치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사회현상의 요인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자연환경이외의 제2의 환경이라는 광의의 문화⁹⁾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역사상 문화가 가장 번영한 시기인 송대 문화의 번영 요인이 바로 송대 의학발전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교정의서국의 성립과 고대 경전 의서의 교정하게 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학의 외적요인은 내적 요인과 아울러서 송대 교정의서국과 업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다.

첫째 요인은 송 정부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정부-진·한·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문화를 보였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우선 송 정부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전제(專制)정치를 하였고, 또한 이전까지보다 봉건경제의 번영을 통해 국가경제가 안정적이었다.

두 번째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경제가 안정되었고 또한 조산업, 방직업뿐만 아니라 활자인쇄술이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활자인쇄술의 발명은 화약,指南針과 함께 송대의 3대 발명으로 지적되는 것으로써, 제지술의 발달과 함께 정부에서 의서를 교정·출판을 통해 보급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상적으로는 유가의 입장에서 불·도가 사상을 수용한 송대의 송학 혹은 신유학체제로 유·불·선 3家が 병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송대 신유학은 한당시대의 훈고학과는 달리 형이상학적인 문제-직관적(直觀的)인 것, 상징적(象徵的)인 것, 내면적(內面的)인 것-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신유학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즉 의리(義理)의 學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만물의 理法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天理와 人性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하였으며 도학(道學), 성리학(性理學), 리학(理學)이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사상계의 변화는 송 정부가 '문인당정(文人

當政), '문물지치(文物之治)' 지식을 중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개방적인 학술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한이후, 특히 수당오대의 문화업적이 많이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송대에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 것과 같다¹⁶⁾.

송 정부는 960년 조광윤(趙匡胤)이 후주(後周)를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후에 그들이 보인 문화사업에 대한 노력은 한의학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2) 의학의 내적 요인

송대에서 교정의서국 설치와 고대 경전 의서의 교정을 하게된 요인을 한의학 발전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송 정부가 전문적인 의학을 중시하고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학발전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송太宗 淳化3년(992년)에 내려진 조칙인 “兩浙諸州先有衣緋裙·巾單·執刀吹角稱治病巫者, 并嚴加禁斷, 吏謹捕之. 犯者以造謠惑衆論, 置於法”을 보면 兩浙地區에 한정되지만 어쨌든 이는 역사상 최초의 巫師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인 것으로서 송 정부가 巫術의인 질병치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⁷⁾. 또한 宋 조정은 일찍이 여러 번 조서를 내려 의학서적을 수집하였으며 책을 헌납한 사람에게는 많은 우대와 편리를 주었다.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981년) 『방구 의서조(訪求醫書詔)』에 이르기를 “宜令諸路轉運司, 遍指揮所管州府, 應士庶家有前代醫書, 并許詣闕進納. 凡二百卷已上者, 無出身與出身, 已任職管者亦與遷轉; 不及二百卷, 優給緡錢償之; 有詣闕進醫書者, 并許乘傳, 仍縣次續食.”이라 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如不納官者, 借本繕寫”라 하였으니¹⁸⁾ 이처럼 대규모로 의서를 구하고자 하는 작업과 같은 노력뿐만 아니라 교정의서국 설치 등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송 정부 초기의 의서를 수집하고 편찬하려는 노력은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교감의 근거를 필요로 했는데 이를 교정의서국을 설치하여 고대 경전 의서의 교정

함으로써 교감의 근거를 구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두 번째는 진한이후, 특히 수당오대의 의학발전이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때 교정한 의서들을 보면, 『황제내경』, 『상한론』, 『신농본초경』, 『맥경』 등 한의학 연구의 기준이 되는 것들로서 모두 송대 이전에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송대 이전에는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저서의 전달과정상에서 잘못된 판본들이 유포되면서 의학연구에 있어서 혼란이 심화되어 폐단으로 지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학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정의서국 설치를 통한 교감·정리 및 간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규범화된 당대의 의학교육기관을 계승하여 인재양성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재의 배출은 당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의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백성에 이르기까지 蘇軾, 沈括과 같은 많은 지식을 가진 명인들이 醫를 행하면서 저술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명인들이 醫를 숭상하고 문인들이 醫를 아는 사회풍조가 형성됨으로써 “不爲良相, 當爲良醫”와 같은 사회풍조에서 ‘儒醫’와 같은 의학인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또한 학술계의 개방적인 학풍이 만연하면서 새로운 학문인 신유학이 흥기하면서 배출되는 인재들도 교정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합하면 곧 정부의 지지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한의학 자체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면서 한의학 연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참여할 인력도 풍부하였기 때문에 교정의서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역사 연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발전규율을 파악하여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한

의학에 나타나는 학문연구의 정체성의 원인은 현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과학기술의 기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학에 대한 검증문제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고 있다.

모든 학문은 각기 세계관과 문화에 따라 고유한 방법을 통해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론체계속의 방법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한다. 만약 연구방법이 이론상의 근본적인 특징과 상이하다면 곧 타당성을 잃고 유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단지 과학적 방법으로 한의학에 접근하려고 하고; 한의학은 오늘날의 제도적·사회적·학문적인 토대인 서양과학을 배척하고 한의학의 특성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서양의학은 한의학에 대해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이 가지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연구방법론이다. 그것은 연구방법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와 아울러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⁹⁾거나, “어떤 중의를 연구하는 외국의 전문가는 일찍이 날카롭게 지적하기를 ‘몇 십년동안 진전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상응하는 방법학개념이 결핍하였기 때문으로 …… 마땅히 중국학자에게 인식론을 파악케 하고 현대 과학적 방법을 중의의 인식론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¹⁰⁾라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한의학의 발전이 지금까지 여전히 완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채택한 정확한 연구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⁹⁾거나 “한의학은 고대철학의 사상과 사유특징이 있는 자연과학이고 인류생명현상과 병리현상을 연구하는 지식체계로서, 독특하고 계통적인 이론체계와 풍부한 실제경험을 가지고 있다.”¹¹⁾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의학 학문연구의 검증과 근거 부족이라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송대의 교정의서국의 성립을 통한 고대 경전 의서의 교정이라는 사실(史實)을 근대이전 한의학의 학문 근거를 마련한 토대였다는 전제아래 기구의 설치, 교정내용 및 배경을 살펴보았다.

송대 교정의서국의 설치와 교감정리작업의 성공은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토양으로 삼아 여기에 한의학 자체의 학문역량의 축적 및 많이 양성된 신유학과 의학 관련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씨앗을 뿌려서 당시 발전된 과학기술 즉 인쇄술과 제지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학문적 사고를 비료로 하여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의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경제·사회·학계·문화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연구방법 및 현대과학기술과의 대립한 점,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의료인재 양성에만 치우치고 연구인력 양성에 소홀한 점 등 어느 것 하나 교정의서국 설치 당시와는 반대의 환경 속에 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오늘날 한의학의 연구상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학문 외적 기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의학 학문연구의 정체성 또한 역사적 규율로¹²⁾ 보아 반드시 극복하고 미래에 뚜렷하게 세계 인류의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오늘날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이전 한의학의 발전 역사 중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송대 교정의서국에 대하여 기구의 설립, 교정한 내용과 의의 및 그 배경을 살펴본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송대 교정의서국은 인종 가우 2연(1057년)에 설립되었다.
2.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한 고대 경전 의서는 『보주신농본초』, 『중광보주황제내경소문』, 『상한론』, 『비급천금요방』, 『맥경』, 『황제침구잡을경』, 『외대비요』, 『전금의방』 등이다.
3. 교정의 내용은 진한-수당시대까지 존재하던 각 경전 의서의 여러 판본 및 참고의서를 비교 분석과 의학이론을 근거해서 교정하였다.
4. 고대 경전 의서를 교정한 의의는 서지학적으로

는 이전 시기에 유실될 수 있었던 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내경, 상한론 등에 대해 정형화, 규범화함으로써 이후 한의학 연구의 근거를 문헌자료로 귀속시켜 연역적 방법으로 근대이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교정의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식을 중시한 제도, 인쇄술과 제지술이라는 기술의 발전, 신유학체제로 유·불·선 3가의 병존, 개방적인 학문의 풍토 등의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빈번한 의서 수집과 편찬에 따라 학문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전 시대까지의 학문적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었으며 규범화된 의학교육을 통한 의학연구인재와 신학문인 송학에서의 인재배출 등 연구인력이 풍성하였다는 내적 요인 등에 의해 교정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근대이전까지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교정의서국의 성공은 오늘날 한의학 학문연구의 정체성은 서양의 과학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과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학문연구의 성공에는 주변 학문 외적·내적 요인들과 병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박희준. 『동양의학의 기원』. 서울: 하남출판사. 1996: 13.
2. 여인석.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동서양의 의학교류를 바라보는 네가지 관점』, 『동서의학교섭의 역사』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대한한학회. 1999: 4.
3. 이에정, 『한의학 논문과 임상은 '물과 기름'』, 『民族醫學』 1998년 9월 28일자 11면.
4. H.A. 에로페에프 지음. 김연산편저.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휴계레. 1993:237
5. 歐陽錡. 『試論中醫的方法學』. 『上海中醫藥雜誌』, 1982; (8):37
6. 宋知行. 關於中醫發展某些規律性的看法. 中醫雜誌. 1982;1월호:11-2
7. 甄志亞. 試論中國近代醫學的文化背景特點與趣. 中華

- 醫史雜誌. 1995;25(1):14
8.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89-90
9. 嚴世蓁. 宋代醫家學術思想研究.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10.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367
11. 劉時覺. 北宋醫籍年表, 醫古文知識. 2002: 36-39
12. 田思勝. 宋以前傷寒論傳本及校勘整理研究. 中華醫史雜誌. 2000;30(3):175-8
13.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 醫古文知識. 2001 4기:29-32
14. 林楠, 王立子, 千金要方異文對校與研究, 中華醫史雜誌, 2002 32(2)기:87-91
15. 崔錫章. 論林億校注脈經的貢獻. 醫古文知識. 1997 4기:28-30
16. 黃侖·黃旭東. 醫史與文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164
17. 嚴世蓁.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18. 甄志亞.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9. 蔡永敏, 李玉華. 宋代文化與中醫古籍整理研究. 中華醫史雜誌. 1999 29(4)기:223.
20. 蔡捷恩. 宋朝禁巫與醫述略. 醫古文知識. 1997 3기: 4-7.
21. 蕭德馨, 蕭德馨. 中醫方法論. 重慶: 重慶出版社, 1997.6.
22. 諸國本. 中醫學的若干學術特點. 中醫雜誌. 1989 7기:53.